

# 越·拉北작가 연구, 그 현황과 전망

특정작가에 치중...연구대상 확대 · 작품집 개방 시급해

辛德龍

문학평론가

한국문학사를 서술함에 있어 월북작가와 작품을 배제한다면, 우리는 반쪽의 문학사를 갖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방 이후 많은 문인들이 자신이 선택했던,交友관계에 의해서였던 38선 이북으로 넘어갔다는 사실과, 오늘날까지 이데올로기가 대립되어 왔다는文學外的인 조건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문학외적인 요인으로 그들이 남긴 문학작품은 공백으로 비워진 채 좀처럼 메워지지 않고 있다. 해방직후 끼리끼리 없던 어느 한 이데올로기를 선택·신봉할 수 있었던 3년여의 기간을 제외하곤, 이들의 문학작품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나는 집필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치며 엄격한 의미에서 문학사의 본격적인 서술은 먼 훗날이야 가능하다는 것을 통감했다. 우선 프로문학 또는 월북작가에 대한 난관이 있었다.” (김우중 「韓國現代小說史」 머리말)

위의 난관은 일제하의 프로문학을 주장, 실천했던 작가들의 대부분이 월북했다는 사실과 깊이 관련된다. 따라서 좌우의 이념이 대립, 분단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말은 새삼스럽기보다 체념해버린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현상은 80년 이전 각 대학원에서조차 월북작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로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鄭芝溶·金起林에 대한 연구서의 해금을 단행하면서 문공부의 방침이 “작품출간에 있어 월북작가의 작품집은 계속 해금을 보류하되 해설·연구서의 출판은 허용한다”는 것으로 언명되면서 다시 월북작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월북보다 남북에 가까운 시인·소설가의 경우는 보다 자연스럽게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그 외의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료 개방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연구풍토가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한국문학사의 올바른 복원과, 감추고 억제할수록 깊어가는 이들 작가들에 대한 병적인 호기심을 건전한 연구의욕으로 전환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 70년대 중반까지 대학원에서도 거의 안다뤄

월북작가들에 대한 60년대의 인식은 부정적이었고, 이러한 경향은 이들에 대한 단편적인 글에서 잘 나타난다. 이는 해방직후 이들과 대립되는 입장에서의 문학관을 주장하던 문인들에 의해 한국문단이 이어져왔고, 분단의 고착화에 따른 일방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趙演鉉·崔泰應·金鍾斌 등의 글에서는 연구논문이라기보다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살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월북작가들과 같이 일제하에서부터 문학활동을 해온 입장에서 작품에 대한 연구가 아닌 월북동기·교우관계·해방직후의 문단형성과과정 등을 알려주고 있다. 공통되는 것은 많은 월북작가들이 이데올로기 선택과 작품상의 변모가 세계관의 변화에서라기보다 교우관계 등 지극히 동정적이라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는 달리 이들 월북작가들이 북한에 가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숙청을 당했는지에 대한 관심은 李喆周의 「北의 藝術家」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직접 그들과 만나고 또 생활해온 저자가 북한에서의 문인들간의 권력쟁투 과정, 그리고 숙청당하기까지의 과정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면서 앞의 논의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여하튼 60년대의 월북작가들에 대한 논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적인 면에서의 고찰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 작품소개가 있다고 하면 「東西春秋」(63년 4월호)에 「월북작가의 문학작품」이란 특집에서 李泰俊·鄭芝溶·金起林·朴泰遠에 대한 극히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인물평과 작품이 한두편씩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 문학사적 측면 연구에 비해 作家論은 부족

월북작가에 대한 연구가 학문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70년대 중반 이후라 할 수 있다. 金允植·李在銑·김우중·권영민... 등의 연구는 批評史的인 측면과 문학사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金允植의 「韓國近代文藝批評史研究」는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 금기시되어온 프로



문학의 성립, 자체내의 理論論爭 등 이론적 기반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남·월북작가의 작품이 자연스럽게 인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金炳翼의 논의(「世代」77.4)와 더불어 60년대의 편견을 불식시키고 이들 문인들의 문학과 작품에 대한 연구를 보다 진척시킬 수 있는 토대로 마련했다. 그 결과 각 대학원에서 KAPF에 대한 再論이 활발해지고 鄭芝溶·金起林·李庸岳... 등에 대한 연구를 비롯, 30년대 리얼리즘 소설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직도 정치적 상황이 이들 작가나 작품에 대한 연구를 자유롭게 할 만큼 완화된 것도 아니고, 작품들도 해방 이전의 것으로 국한되기 때문이다.

문학사에 대한 연구 역시 20~30년대의 KAPF를 비롯, 해방직후의 좌익 이데올로기를 지녔던 작가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金允植의 「韓國現代小說史」 이후로 해방 직후의 문학활동에 대한 언급은 김우중·정한숙·권영민 등의 저서에서 두드러진다. 해방 직후의 문학활동 부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이 구체화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특히 권영민의 「韓國近代文學와 時代精神」, 「解放直後의 民族文學運動」 두 저서는 일제시대와 6·25 후의 문학사를 연결해주는 역할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문학사의 측면에서 해방직후의 문학활동에 대한 규명이나 연구가 韓國文人協會編 「해방문학 20년」, 鄭漢淑의 「解放文壇史」 등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문학사 서술에서 부분적으로 취급되고 있었지만 해방직후의 左右文學論의 차이

와 그 구체적 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기야말로 문학활동에 있어 가장 자유스럽고 활발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현실적인 어떠한 제한없이 자신의 문학론을 개진할 수 있었고 그 논리가 정교화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民族文學으로 요약되는 이 시기의 문학활동은 해방, 母國語 회복, 좌우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회적 혼란, 국토분단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오늘날 이러한 상황이 국토의 분단으로 이어져 있음을 생각할 때, 또 이 시기가 월북작가들이 38선을 넘어간 시기임을 생각할 때 이들에 대한 연구는 민감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악조건 아래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해오던 해방직후의 문학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오늘의 민족문학을 규정하는데 있어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 노력 이후로 몇몇 대학원에서 이 시기의 문학활동에 대한 문학사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 역시 오늘의 문학활동을 재인식하는 계기로서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비평사 측면이건 문학사 측면이건 남·월북작가에 대한 작가론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최근 김학동에 의해 「鄭芝溶研究」 및 「金起林研究」가 단행본으로 나오면서 불붙은 작가론연구의 출현을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작가론이 주로 鄭芝溶·金起林·李泰俊·朴泰遠 등에 국한되어 있고, 작품론의 경우 해방이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또 연구되는 작가들은 월북했어도 문학성향이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그외의 많은 작가들은 문학사의 이면에 문

- 1960년대의 연구가 작가나 작품 자체보다는 월북동기나 교우관계 등에 대한**
- 다분히 동정적인 언급이 주류를 이루었던 데 반해,**
-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 프로문학과 30년대 리얼리즘소설에 대한**
- 문학사적 논의들이 진행되면서**
- 월북작가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된다.**
- 1980년대의 연구는**
- 이러한 고조된 관심에 이어,**
- 비록 제한적이거나 구체적인 작가론 등을**
- 창출해내기에 이르렀다.**

혀 있거나 잊혀진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들이 선택한 이념 때문에 한 작가로서, 또 그들의 작품들이 냉정한 평가를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作品論·作家論이 선행되지 못한다면 한국문학사의 올바른 서술은 앞서 김우중의 언급처럼 먼 후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문학사의 실지회복을 위하여**  
 월북작가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해방이전에 머물러 있다. 70년대 이후의 관심과 80년대 이후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는 해방이전의 傾向文學에 대한 연구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향문학의 연구는 곧 월북문인들의 작품·작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KAPF 계열의 많은 작가가 월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방이전의 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과 반비례하여 해방직후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해방직후에 작품활동을 한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성공작이다 실패작이다의 여부조차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겨우 문학사에 언급되고 있는 작가란 李泰俊·安懷南·許俊·朴魯甲·鄭芝溶·金起林·林和 등이 있을 뿐이다. 그외의 작가에 대한 언급이나 작품분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이다. 현재 해방이전의 자료는 대부분 정리가 된 반면, 해방이후의 자료들은 거의 없어졌거나 있다 하더라도 장서가들의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어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각 대학 도서관에도 몇몇권이 소장되어 있으나 '불온문서'로 분류되거나 '귀중본'으로 되어 있어 연구자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있는 자료부터라도 보완·정리하여 개방하는 일이 시급하다. 당시의 작품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자료마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문학사의 서술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작가론·작품론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각각의 작가나 그들의 작품에 대한 문학사적 위치에서의 평가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문학이론에 대한 관심보다는 작가·작품론에 보다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

셋째, 작품집에 대한 보다 과감한 개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출판에 있어 작품집은 보류하고 그에 대한 연구·해설은 허용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작품이 규제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에 대한 연구와 해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단순히 문학사의 정립을 위해서도, 계급문학의 정치적 편중성을 비판하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아울러 비정치적 순수문학이 민족문학의 본래적 의미에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의 여부도 재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월북작가에 대한 知的 호기심 이상의 냉정한 비평적 안목이 필요하다.

이러한 몇몇의 난관에 대한 언급은 작품을 쉽게 대할 수 없었던 데서 오는 아쉬움이지, 그들 작품이 전혀 출간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80년대 후반에 와서 '기민사' '슬기' '세계' 등 출판사에서 이들 작품이 출간되고 있었다. 또 최근에는 정지용과 김기림, 白石의 작품들이 전집으로 정리돼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들 작품 전체에 대한 냉정하고 이성적인 평가·비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료개방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문학사의 올바른 복원과 정립을 위한 기초적인 토양을 마련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책의 세계**

#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

## 기능적인 文盲

김호근  
프리 에디터

**글을 읽을 수 있으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든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읽기수준에 못미치는 사람도 문맹으로 간주할 수 있다. 미국에는 이런 '기능적인 문맹'이 6천만명이나 있다. 우리나라의 실상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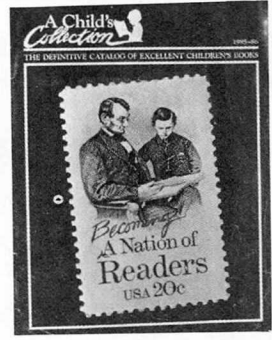
문맹의 문제는 우리 주위에서 오래 전에 없어진 일 또는 후진국에나 있는 일쯤으로 대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2천5백만의 미국 성인이 독약이 든 캔의 겉표지 내용이나 자녀들의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지 못하며, 3천5백만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읽기수준의 이하라는 연구보고서(J.Kozol:「Illiterate America」)가 발표되었다. 이들을 합친 6천만명은 곧 세 사람 중 한사람이 문맹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런 기능적 문맹은 해마다 230만명이 늘어난다고 연구보고서는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독서(글읽기)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미국을 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책자나 신문의 특집란을 통해 일고 있고, 글을 읽고 쓰자는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례로 1984년에는 '책 읽는 나라'란 표제아래 링컨 대통령이 아들 테드에게 책을 읽어주는 옛그림을 우표로 발행했고, 1987년을 'The Year of Reader'로 정하였으며 86년 가을 이후로는 '글을 읽고 쓰기 위한 연맹'(Coalition for Literacy)명의 수많은 캠페인 광고가 모든 매체에 등장하고 있다.

미국연방정부의 보고서는 읽기수준과 실업, 범죄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으며 1969년에는 교육성 주관으로 'Right to Read' 캠페인을 벌인 적도 있었는데, 이제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얼마나 많은 문맹이 실재하는가는 어떤 것이 문맹이 아닌가 하는 정의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진다. 출(J.S.Chall)이라는 전문가는, 거리 표지판이나 아주 단순한 읽기 자료를 해독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문맹의 숫자는 아주 적겠지만 기초기능적인 글읽기 수준(국민학교 4학년 수준) 이하의 사람을 문맹으로 생각한다면 2천7백만, 지방신문의 뉴스란이나 다이제스트



된 잡지의 글을 읽는 수준(8학년 정도)에 미달하는 사람을 문맹으로 본다면 4천5백만, 나아가 기업이나 군대에서 퍼낸 기술적인 매뉴얼을 읽는다는 「타임」 「뉴스위크」를 읽는 수준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7천2백만의 성인을 문맹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아티클에서 쓰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문맹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글을 읽을 수 있으나 이해하지 못한다든가 저급한 읽기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읽기에 전혀 의존하지 않거나 또는 읽기 싫어하는 여러 상태의 사람도 문맹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준문맹자'라고 명명한 사람도 있다.

우리 주위에도 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들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소극적인 분위기가 있어왔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독서수준을 따져보고 기능적으로 문맹자이거나 독서가 불가능한 실상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아이들과 성인들은 TV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범람하는 시청각매체들은 그것들이 책의 기능을 충분히 대신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다. 비록 읽을 수는 있지만 읽기수준은 낮은 데서 멈추고 기능적인 글읽기는 그 중요성을 잃어간다.

우리네 신문·잡지의 낮은 수준의 글쓰기와 사고를 요구하는 글의 외면, 나아가서는 비판이나 논쟁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우리 사회의 정체된 읽기수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책을 통해서보다 직접 강의에 의존하고, 한때 동화같은 독서물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도 이와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글을 읽고 쓸 줄 알면서도 책이나 잡지는 접어들거나 펴보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학생들 가운데는 독서가 단지 교과서나 참고서를 읽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독서운동을 주요사업의 하나로 펴온 유네스코는 한 책자의 서문에 쓰고 있다. 컴퓨터가 활약하는 이제, 교육의 가장 큰 일은 思考를 가르치는 일이다. 단순한 정보보다 이해, 척척박사보다 현명함이 더욱 중요하다. 책은 바로 사고와 이해를 증진하는 가장 적합한 매체인 것이다.